

올 하반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 추진

올 하반기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3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인증제도(안)를 수립했다. 의료기관 현장에서 원활히 운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인증제도(안)를 보완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인증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키로 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신청방법을 간소화해 현장의 편의성을 높였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대 및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도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이다.

국내 의료기관의 92.1%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사용범위와 도입형태에 차이가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자체개발 또는 위탁개발, 종합병원 등 상용솔루션 구매 또는 위탁개발, 병·의원 등 상용솔루션 구매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보건복지부 주관, 전자의무기록인증제실무추진단 주체로 열렸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의료계·산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개요와 정책방향이 소개됐다. 인증기준 및 인증지침, 인증심사인력 및 인력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주혜진 기자 hjjo@koreanurse.or.kr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 컨설팅 사업

병원신생아간호사회, 병원여성건강간호사회 참여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상담(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병원신생아간호사회와 병원여성건강간호사회가 산후조리원 컨설팅 제공 및 각종 매뉴얼 개발에 참여했으며, 컨설턴트로 신생아·모성분야의 간호사가 참여한다.

산후조리원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는 2015년 마련됐으며, 평가기준 마련 연구와 평가기준에 따른 현장 적용가능성 검증을 위한 시범평가 시행된 바 있다. 시범평가 결과 산후조리원 평가의 절차, 방법, 지표 등에 대한 인식 및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후조리원 평가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평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컨설팅 사업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 각 분야의 전문가와 산후조리원이 함께 현장에서 예비평가를 시행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해 컨설팅을

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마련됐다.

산후조리원 컨설팅 제공 및 각종 매뉴얼 개발에는 한국모자보건학회, 병원신생아간호사회, 병원여성건강간호사회 등이 참여했다.

컨설팅 사업은 50개 산후조리원을 선정해 8월부터 실시된다. 감염, 안전, 돌봄 전문가와 산후조리원 운영자로 구성된 컨설팅팀이 직접 산후조리원 현장을 세 차례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팀은 수석컨설턴트 5명을 포함해 총 63명으로 구성된다. 분야별로는 보건 42명, 보육 8명, 산후조리원 운영자 8명, 안전 5명이다.

보건학의 경우 신생아·모성 관련 경력 20년 이상 탐장급 수간호사 및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유경험자 등이 수석컨설턴트로, 수간호사나 탐장 또는 경력 10년 이상인 간호사로 의료기관 인증평가 유경험자가 컨설턴트로 참여하게 된다.

정규숙·이진숙 기자

2019년도 제13회 보령심사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등록민간자격) 자격기본법 제17조 2항에 의거 등록 제2008-0411호

1. 응시자격

시험종목	응시자격
보령심사관리사	1. 보건외교 관련 학과* 전문학사 이상의(졸업예정자 포함) 학력 소지자 (단, 관련 학과에 대한 심의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운영위원회에서 함) 2.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보령심사 관리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령심사 관리 실무경력을 갖춘 자

1) 3가지 응시자격 중 택 1하여 응시 가능.
2) 보건외교 관련 학과: 본원 홈페이지(www.kabone.or.kr) 공지사항 490번 '학과(전공) 분류자료집' 참조.

2. 시험일정

구분	내용	비고
응시원서 접수	2019. 8. 12(월) 10:00 ~ 9. 6(금) 18:00	• 인터넷 접수
응시수수료 납부	2019. 8. 12(월) 10:00 ~ 9. 6(금) 18:00	• 검정수수료 (150,000원) • 계좌이체 신청은행 100-024-915678 (예금주: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응시원서 심사결과 확인 및 수험표 출력	2019. 9. 27(금) 14:00 이후	• 본원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및 수험표 출력
시험시행	2019. 11. 24(일) 10:00	• 10:00 이후 입실 불가 • 차량 이용 불가 • 대중교통 이용 요망
	(1) 수험표 배부: 9. 20(금) 14:00 이후 개별 출력하여 지참 * 신분증, 수험표 미지참시 시험 응시 불가 (2) 입실 가능시간: 9:00~10:00 (3) 시험시간: 10:30~12:20	
장소	서울 광남고등학교(http://www.gwang-nam.hs.kr)	
합격자 발표	2019. 12. 13(금) 14:00	• 본원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상기 "보령심사관리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 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관리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jg.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관련 문의: 본원 홈페이지(www.kabone.or.kr), 전화(1833-6230, 내선번호 3번), 전자우편(apn@kabone.or.kr)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

병상 수 OECD 대비 2.6배 ... 평균 재원일수 2위

복지부 'OECD 보건통계 2019' 발표

우리나라 총 병원 병상 수는 OECD 평균보다 2.6배에 이르며,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가 OECD 국가 중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9'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

'OECD 보건통계'는 건강수준, 건강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장기요양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를 담은 데이터베이스이다. OECD는 국제기구의 공통 지표를 기반으로 작성된 회원국의 통계를 제출받아 매년 경신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주로 2017년 수치를 기준으로 회원국의 보건의료 수준을 비교했다.

△건강수준 및 건강위험요인=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국가의 평균 80.7년과 비교해 상위국에 속했다. 기대수명이 가장 긴 일본(84.2년)과는 1.5년 차이를 보였다.

15세 이상 인구 중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29.5%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

OECD가 산출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암에 의해서 인구 10만명당 165.2명이, 순환기계 질환에 의해서 147.4명이, 호흡기계 질환에 의해서 75.9명이 사망했으며, 치매에 의해서 12.3명이 사망했다.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8명으로 OECD 평균 3.8명보다 낮았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6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리투아니아(26.7명) 다음으로 높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은 17.5%,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은 8.7ℓ로 OECD 평균(흡연율 16.3%, 주류소비 8.9ℓ)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었다.

과체중 및 비만은 33.7%로 일본(25.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은 2007년 31.0%, 2012년 31.8%, 2017년 33.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건의료자원 및 이용= 총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3

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OECD 평균 4.7개에 비해 2.6배에 이르렀다.

최근 5년간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연평균 3.7% 증가했고, 급성기 치료 병상은 0.4% 증가한 반면 장기요양 병상은 9.5%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이는 OECD 평균 7.1회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8.5일로 일본(28.2일) 다음으로 길었으며, OECD 평균은 8.2일로 집계됐다.

제왕절개 건수는 출생아 1000명당 451.9건으로 OECD 국가 중 터키(531.4건)에 이어 많이 실시했다. OECD 평균은 265.7건이었다.

△장기요양= 65세 이상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는 8.3%로 OECD 평균 12.5%보다 낮았다.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에 따라 GDP에서 장기요양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0.3%에서 2017년 0.9%로 증가했다.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3.6명으로 OECD 평균 5.0명보다 적었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의 병상과 시설의 침상은 60.9개로 집계됐다.

주혜진 기자 hjjo@koreanurse.or.kr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민·관협의체 회의

정부는 WHO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지난달 23일 개최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월 제네바에서 개최한 제72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총회 마지막날인 5월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했다.

1990년 ICD-10이 나온 지 30년 만에 개정된 ICD-11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 '6C51'을 부여했으며, 이는 정신·신경 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항목에 속한다.

민·관협의체 출범을 위해 그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왔다.

협의체는 의료계, 게임계, 법조계,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 각

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 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맡았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는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관련 WHO 권고는 2022년 1월 발효되고, 국내 도입을 결정하는 경우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이 빨라야 2025년 가능하므로 2026년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우선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추진 배경,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계획이다.

또한 질병코드 도입의 과학적·객관적 근거와 관련해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주혜진 기자 hjjo@koreanurse.or.kr

2019년 간호사 면허신고 안내

2019년 면허신고 대상

- ▶ 2015년 12월 31일 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 ▶ 2012 ~ 2015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를 하지 않은 자
- ▶ 2016년 면허 취득자
- ▶ 2016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면허신고센터 ☎1644-1755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lic.kna.or.kr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koreanurse.or.kr)에서 바로가기 클릭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신 경 림 인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040638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 호 사 신 문 (02)2260-2571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news.co.kr



간호학 전문 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 ✓ 임상생활 또는 현재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구축
- ✓ BMW (버스, 전철, 도보)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온라인 + 모바일 무상 제공
- ✓ 혼자서가 아닌 전문 학습 담임제에 의한 1:1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간호직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복지부공무원 /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080-913-0909

www.ganhohak.co.kr

